

한글미담

Vol. 22

2016-2017 Winter

目標

미국 간호사 면허취득 고인정 씨
(간호학과 1회 졸업)



前進

〈꿈을 여는 창의공작소〉 최준용 대표
(미디어영상전공 재학)



挑戰

기업은행 취업 금현유 씨
(중국경제통상학과 졸업)



希望

이태석 사랑나눔 재단 후원 학생
남수단 공화국 존 마팔
(한국어교육원 재학)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한남대학교

발행인 이덕훈

편집인 정충영

취재·글 김대진, 장효진

제작처 한남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오정동) www.hannam.ac.kr

편집디자인·인쇄 (주)두원

Contents

2016 - 2017 Winter VOL. 22



04 From HNU to Success

기업은행 취업 금현유 씨
미국 간호사 면허취득 고인정 씨
〈꿈을 여는 창의공작소〉 최준용 대표
이태석 사랑나눔 재단 후원 학생 남수단 공화국 존 마팔

08 새로운 60년,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딛다

Part 1. 교육연구 및 행정의 혁신으로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다.
Part 2. 총장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
Part 3. 아시아를 넘어 세계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14 끝내 이루리라!

인터뷰 1 - 제51회 공인회계사 2명 합격
인터뷰 2 - 신희현 장군 인터뷰

18 한남 어제와 오늘



20 특별한 한남인

48년 전 컨닝이 양심에 찔려 졸업장 반납한 동문
2016 자랑스러운 한남인상 수상자

22 체육강호 한남

체육부, 전국대회 성과 눈부세

26 HNU 입시정보

2017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생명시스템과학과
융합디자인학과

30 한남대 최초 '스타 교수' 를 만나다

수학과 유천성 교수
화공신소재공학과 이진호 교수

32 HNU 뉴스

주요 소식
한남People

36 기부, 그리고 사랑

또 다른 가족, 한남대
한남대 기부천사들

“꿈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발견하고 도전하세요.”



挑
戰
도전

한남대 중국경제통상학과 졸(11학번)
기업은행 대전신탄진지점 금현유 씨

어렵게 입사한 은행에서 부푼 꿈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사회 초년생의 길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동영상은 나를 돌아 보게 했다.

“내가 있는 곳이 꿈꾸던 곳이 아니라도 그 꿈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꿈처럼 일하라. 그러면 그것이 내 꿈이 될 것이다.” 동영상 속 이 구절을 보고 나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다시 도전하기 위해 금융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듯 새로운 꿈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한남인 모두 화이팅!

한남대 간호학과 출신 최초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

“오랫동안 기다린 꿈,
꿈에 대한 의지가 나를
버티게 했다.”

目
標

목표

한남대 간호학과 1회 졸업생 고인정 씨

벌써 11월, 2016년 내가 세운 TO DO LIST를 점검할 시간이 다가왔다.
한 달에 2권 이상 책 읽기는 세모, 지킨 달도 있고 지키지 못한 달도
있고...

그것 빼고는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한 무척이나 뿌듯한 한 해였다.
2017년을 맞이하여 내가 정한 목표는 단 하나, 미국에서 잘 적응
하기!

오랜 꿈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지금 설렘과 기쁨은 30% 정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를 설명해 주는 수식어(미국 간호사)가 하나 더 생겼다
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디지털 영상기술과 문화예술의 융복합

컨버전스아트로 산·학협력 수익 창출

前進

전진

한남대 미디어영상전공
'꿈을 여는 창의공작소' 최준용 대표

영상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시청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감동 또는 재미 등을 선사하는 분야다. '꿈을 여는 창의공작소'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융복합 미디어를 제작하는 팀으로서 'HNU 60주년 미디어 파사드', '미켈란젤로展', '좌우시간展 [interaction art 'same']'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매년 다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미디어를 시청자들에게 상영할 때가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창의공작소 알파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후배가 아니라 가족과 같아진 이 친구들에게 '늘 믿고 따라와 줘서 고맙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꿈을 향해 달려 나갈 것이다.



“한국은 기회와 축복의 땅!

열심히 공부해서
남수단 국민들을
돕고 싶어요.”

希望

희망

이태석 사랑나눔 재단 후원 학생
남수단 공화국 존 마팔(한남대 한국어교육원 재학)

나는 아프리카 남수단 공화국에서 '이태석 사랑나눔 재단'의 후원으로 작년에 한국에 왔다.故 이태석 신부(영화 '울지마 톤즈'의 실제 인물)는 나의 집 맞은편에 살아서 그의 집에 종종 놀러 가곤 했다. 그 분은 언제나 남수단 사람들에게 교육과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나에게 기회와 축복의 땅이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의 화려함과 발전상에 놀랐지만 지금은 한남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조금씩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인 한남대는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오게 됐다. 한국인의 친절함과 정에 감사함을 느낀다. 언젠가 내 조국인 남수단으로 돌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돕고 싶다. 한국 사랑해요!

새로운 60년,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딛다

한남대가 2016년 3월 이덕훈 총장 취임 이후 대학가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혁신은 어마어마한 데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노력을 통한 컨센서스 중심의 학교 운영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이 총장의 이 말로 대변할 수 있는 2016학년도 변화의 발걸음을 정리해본다.



Part 01.

교육연구 및 행정의 혁신으로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다.



2



3

• SCI급 논문 강화로 연구역량 상승

이덕훈 총장은 2학기 개강 직후인 9월 8일 문과대학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8개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전체 교수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교수들이 부담을 갖는 의제인 SCI급 논문 등 연구업적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 총장은 “지방대 중 처음으로 교수 승진심사 등에서 SCI급 논문이 필수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한남대의 연구역량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교수님들의 양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 ‘교양강의 컴플렉스’ 조성 추진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수강 편의성을 위해 교양강의 컴플렉스를 추진 중이다. 학생들은 ‘총장님과 함께하는 도시락 간담회’에서 강의실 간의 이동거리가 멀어 다음 강의 수강을 위해 이동하는데 불편을 호소했다. 학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 재배치 방안으로 교양강의동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총장은 “학생을 고객으로 모시고 서비스 정신을 확고히 해 대학 운영의 패러다임을 학생 중심으로 전환 하겠다”고 말했다.

• ‘교직원 집중휴가제’, ‘쿨 비즈 캠페인’, 타대학 벤치마킹

우리 대학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여름 5일간 필수근무자를 제외한 전 교직원이 휴무하는 ‘집중휴가제’를 실시해 업무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섰다. 직원들은 충분한 휴가를 통해 새로운 활력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직원의 반바지 차림 근무를 허용하는 ‘쿨 비즈(cool-biz) 캠페인’을 벌였다. 집중휴가제는 겨울방학기간인 2017년 2월초에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책사업 우수대학들을 벤치마킹하는 파격 행보도 대학가의 주목을 끌었다. 우리 대학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전·세종지역 최상위권인 우수(B)등급을 획득하고 지방대학특성화(CK-1)사업,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거점형 창업선도대학 등의 국책사업에 선정되었고,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ACE(학부교육선도대학)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art 02.

총장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

• 학생·교수·직원·학부모까지 전방위 소통 '총장과 함께하는 도시락 간담회' 기숙사 및 학생복지시설 대폭개선

이덕훈 총장은 2학기 개강 직후부터 2개월 동안 8개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전체 교수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행정팀장들과는 아침 7시30분에 '730조찬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10월 12일에는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희망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수강신청 방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밖에 대덕밸리캠퍼스 통학 편의를 위한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또는 학교셔틀버스 증편, 사범대학 임용고사 준비생들에 대한 지원 등의 건의가 나왔고, 이 총장은 "학생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총장은 이렇게 교수, 직원, 학부모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학생들과의 소통에 많은 열정을 쏟고 있다.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이른 아침 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수시로 각종 학생시설들을 방문해 애로사항과 불편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 임원들과도 점심 도시락 간담회를 열어 학생 여론을 수렴하고, 시험기간에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김밥과 음료를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학생 기숙사 식당 및 학생식당의 음식 메뉴의 질이 높아졌으며, 교수식당과 학생식당의 구분을 없애고 최고 수준의 카페테리아로 통합 운영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자신의 전용차량을 반납하고, 국내외 출장 시 비행기 비즈니스석 대신 이코노미석을 타는 등 경비를 절약해 학생 기숙사의 노후 세탁기 수십대를 교체해주기도 했다.

이 총장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당, 화장실, 휴게실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계속 만들어가겠다”며 “한남대의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는 여전히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다.



3. 학부모 초청 간담회 4. 외국인교수들과 소통 간담회 5. 배낭을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에 출근하는 이덕훈 총장 6.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식사하는 이덕훈 총장

Part 03.

아시아를 넘어
세계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 미국장로교대학연맹(APCU) 가입

한남대가 올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큰 날개를 얻었다. 미국 이외의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장로교대학연맹(APCU)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APCU 소속의 미국 66개 대학과 긴밀한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으며, 국제적인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다. APCU 가입은 지난 5월 말 개교 60주년을 맞아 이덕훈 총장이 미국장로교 본부와 APCU 본부를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또한 APCU 바바라 미스틱 회장이 10월 우리 대학을 방문해 교류협력회의를 열고, 학생과 교수 상호교류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내년에 APCU 이사회를 우리 대학에서 열고, 2018년 APCU 총회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남글로벌센터 리모델링 준공

해외 자매대학 및 외국인 교환학생 유치 상승

한남대 캠퍼스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모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교내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교육원 수강생 270명, 학부 재학생 181명, 대학원 재학생 77명 등 528명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 자매대학에서 온 교환학생 수는 10월 기준 79명으로 작년 64명보다 증가했다. 우리 대학은 현재 세계 46개국 224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다.



최근 '한남글로벌센터' 리모델링 준공식을 가졌다. 옛 대전외국인학교(TCIS)를 인수해 조성한 글로벌캠퍼스 내에 있던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무어아트홀과 열람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시켰다. 한남글로벌센터는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과 각종 프로그램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노벨화학상 수상자 스즈키 교수 초청특강

“자신의 연구가 작아 보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밀고 나가면 노벨상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 학교는 10월 31일 개교 60주년 기념 세계 석학초청 강좌를 열었다. 강연자는 201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일본 홋카이도대학 아키라 스즈키 교수. 그는 '유익한 과학의 대표적인 예 : 유기붕소 짝지음 반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스즈키 교수는 '스즈키 반응'을 발명한 화학자로 그의 나이 80세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스즈키 반응은 현재 의약품 및 천연물 합성과 LCD, OLED, 유기트랜지스터, 유기태양전지 등의 전자소재 생산 공정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스즈키 교수는 “일본은 석탄 외에 별다른 자원이 없고, 한국도 비슷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들은 독창적인 생각과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성과물을 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3



4



5

끝내 이루리라! 인터뷰1

제51회 공인회계사 2명 합격

축하드립니다.

결과가 발표되고 합격이 확정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 임경배 :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첫 일주일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취업준비로 인해 바빠졌지만 수험 생활을 하던 시절보다는 심적으로 한결 편안합니다.
- 전재영 : 합격 사실이 믿기지 않아 세 번 정도 확인을 하고나서야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합격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분들을 보며, 살아가면서 이 날보다 더 기쁜 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학교 고시원(국가시험지원센터)에서 준비하셨는데요, 이 안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 임경배 : 교내에는 회계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어렵죠. 국가시험지원센터에 입주하고부터는 회계사 준비를 하는 선배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복습을 위한 인터넷 강의도 함께 들으면서 학습능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전재영 : 국가시험지원센터는 열람실, 동영상 강의, 각종 회계 관련 도서 등 최적의 공부 장소를 제공해 주었고 그 안에서도 회계사 시험 준비생들끼리 함께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년 이상 수험 생활을 지속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것을 어떻게 극복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임경배 : 수험생활이 길어지면서 처음의 결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런 권태를 막기 위해 일일 최소 학습량을 설정해 실행했습니다.

• 전재영 : 내가 정말 회계사가 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와중에 부모님께서 '네가 선택한 일이기에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 공부를 강요할 생각은 없다' 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과 주 1회 정도 통화를 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이 많이 고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임경배 : 사실 한 번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쉽게 합격했지만, 2차 시험에 떨어지면서 다른 취업을 준비하려고 했죠. 하지만 목표를 두고 포기한다는 마음을 떨칠 수 없어서 자신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다시 회계사 준비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전보다 더 노력했습니다.

• 전재영 : 어릴 때부터 객관적인 숫자로 답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했고, 실제로 회계학을 배우면서 제게 맞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 할수록 생각보다 빠르게 성과가 나는 모습을 보며, 이것만큼은 남들보다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사의 꿈을 갖고 있는 동문 후배와 한남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임경배 : 비록 가려고 하는 길이 외롭더라도 의지를 갖고 열심히 준비하다보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시험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 역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재영 : 회계사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턱대고 학원에 등록한 이후 상법, 경영학, 경제학 같은 과목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오히려 도전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고 도전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 강안나(문예창작 3)



임경배(경영학과 06학번)

전재영(회계학과 09학번)



끝내 이루리라! 인터뷰2

신희현 장군 인터뷰

한남대학교 최초로 장군이 되셨어요.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총장님과 교수님, 동문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남대 ROTC 창설 이래 처음으로 장군이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방위는 물론 모교의 명예를 빛내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05년에 6개월 동안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서 생활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해외파병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와 자부심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40도가 넘는 곳에서 생활해야 했고 현지 마을에 작전을 나가면 테러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파병생활을 마치고 나면 국위선양을 했다는 것과 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 생활 중 힘든 시기를 맞이하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든지 힘든 시기와 힘든 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장군, 나아가 한 명의 ‘리더’ 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군에서 리더로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섬김’과 ‘배려’, ‘신의’입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딱딱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리더가 먼저 섬기는 자세로 부하에게 다가가면 조직이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한 리더가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뜻으로 사람사이의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고사성어입니다. 무엇보다 조직생활에서는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군인이라면 지켜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ROTC 학생들 중에서도 직업군인의 길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 시기 바랍니다.

한 분야에서 일을 수십 년씩 하다보면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흔히 ‘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고 싶은 분야에 달인처럼 시간을 투자해 노력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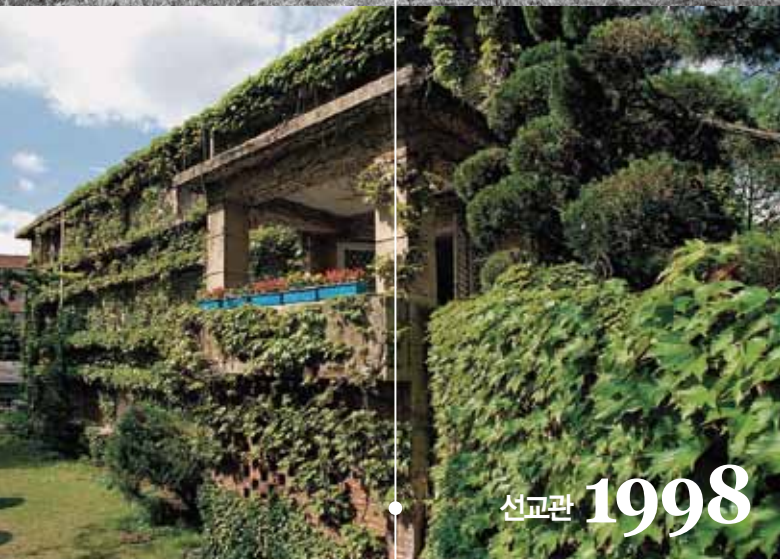
고 생각합니다. 직업군인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국가관과 열정, 높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146ROTC 파이팅!

인터뷰 : 황다슬(국어국문 3)





여학생 기숙사 1967



선교관 1998



김기수기념관 현재

한남 어제와 오늘

60년 전통과 역사로 기억되는 열정의 순간들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탄탄한 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곳,
김기수기념관

최초의 여학생 기숙사였던 이곳은 새로운 기숙사 진리관이 건립되면서 선교관(괴테 홀)로 이름을 바꾸어 기독교인들의 성경공부, 세미나, 특별예배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개방된 기독교문화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현재는 김기수기념관으로 명명하여 그의 기독교적 사랑과 공로를 기념하고 있다.



• 최초의 도서관 **1960**



• 학사관리팀 **현재**



지식을 쌓고 진리를 깨우쳤던
한남대학교 최초의 도서관

한남대학교의 초창기 도서관이었던 이곳은 오래전부터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지식과 진리를 알아가는 뜻깊은 장소였다. 위 사진속 여성은 제2대, 4대 도서관장이었던 모가연(Mrs. Katherine B. Moore) 관장의 모습이며 현재 이 장소는 학사관리팀이 업무를 보며 학사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원활한 교육서비스를 위해 운영되는 곳이다.



• 인돈기념관 **1970**



• 대학 본관 **현재**



한남대학교, 그 정신의 뿌리,
인돈기념관

한남대학교 최초의 건물인 인돈기념관(대학 본관)은 2010년 창학정신의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원래의 기와지붕으로 복원되어 멋스러움이 돋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 인돈기념관의 1층 내부에는 대학도서관이 있었으나 1999년 학술정보관(중앙도서관)이 개관되어, 현재 인돈기념관은 대학본부로서 한남대학교의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곳이다.

48년 전 컨닝이 양심에 찔려 졸업장 반납한 동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졸업장을 반납한 ○○○동문은 한남대학교 1968년도 졸업생이다. ○○○동문은 국내뿐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 한쪽에 걸림이 있었다. 그것은 대학생 시절 한 과목을 컨닝(cheating)했다는 것이다. 48년이 지나서 ○○○동문은 한남대학교에 우편으로 졸업장을 반납하며 회개의 마음을 전했다.

학위등록증
학위명목 44
등록번호
문 학 석사학위
성명 ○○○
1949년 4월 4일
위 사람은 대 전 미화(교)에서
문 학석의 학위를 받고 교육
법시행령제13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
1968년 12월 21일

문교부장관

총 장갑께 올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1968년도에 생물과를 졸업한 ○○○생입니다.

그 당시 대 전 대학 나왔고 미국인 John Talmage 박사가 총장이셨
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한 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과 특권을 누렸지만
늘 저의 마음과 영혼에 걸림이 있었지만 그것쯤이야 ~라고 돌려버린 채
48년이란 긴 세월을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주으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
므로 그냥 묵시하자 하고요, 생령님을 통해 저 마음을 혼드서서 돌려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은봉 교수님 과목인 성경영사와 문학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험을 볼 때 컨닝 (Cheating) 을 했 습니다. 벌점을 줬던지는 장담히 모르겠으나
장점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저지환을 사시는 저가 전직하게 꼭점을 받게 하고 교수님의 눈을 속여 점수를
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죄이고, 속여 계신 하나님을 분노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기쁨을 드리면서 졸업장을 장담히 반납하오니 총장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졸업장과 저의 회개의 마음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선유로써 우리 주님께
부끄러움과 아픔을 드리는 것 보다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결단을 내린 것이니
선지해 주시길 소망!

선유하신 하나님께서 총장님과 한남대학교를 통해 회개와 회개에 회개하는 마음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무한하지만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1

○○○ 올림

2016 자랑스러운 한남인상 수상자



교육분야
박화자 동문

박화자 동문은 1965년 영문과를 졸업하고 전주 기전여고와 서울 보성여고에서 16년간 영어교사로 봉직했다. 이후 한국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무를 역임하고 미국 선교사로서 미국 여전도회를 지도했으며, 미국 빛내리 교회에서 유아원 및 한국학교를 개설하고, 13년간 은혜 기독교 교장으로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해 헌신했다. 현재는 미국 Brookhaven College에서 한국학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목회분야
김정웅 동문

김정웅 동문은 1965년 성문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중앙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 1976년 9월 선교활동을 위해 태국으로 파송되었다. 태국에서 세계한인선교사회(KWMF)를 발족했으며, 1987년 태국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지구촌선교회(KGM)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태국 복음주의 연맹(EFT)의 15인 중앙위원으로 지난 20여 년간을 봉사하고 선교 사역을 했으며 현재는 태국 춘부리선교센터 대표로 태국 복음화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경제분야
김병순 동문

김병순 동문은 사회문화대학원의 최고위과정과 21세기 문화창조 CEO 과정을 졸업했다. (주)나노하이테크의 대표이사로 40년 이상을 계량측정 산업분야에만 집중한 결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 국가과제 연구 수행을 통해 약 3백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에 기여했으며, 2013년부터 미국, 유럽,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2백 7만 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한남대학에 수년에 걸쳐 6천 4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시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언론분야
윤성국 동문

윤성국 동문은 사회문화대학원 언론홍보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언론계에 입문하여 언론인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했다.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동하며 지면을 통해 지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윤성국의 우리말 우리글' 코너를 운영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말 사랑 정신과 바른 우리말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 등 평소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오고 있다.



1



2



3



4

1,2,3 한남의 날 행사에서 박화자 브룩헤이븐대학 교수, 김정웅 태국 선교사, 김병순 나노하이테크 대표가 자랑스러운 한남인상을 수상하고 있다.

4. 한남의 날 행사에서 금강일보 윤성국 사장을 대신해 최일 부장이 자랑스러운 한남인상을 수상하고 있다.

체육강호 한남

체육부, 전국대회 성과 눈부셔

한남대 대운동장과 체육관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우렁찬 소리가 들려온다. 매일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는 이들은 한남대를 대표하는 체육부 선수들이다. 땀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듯, 올해도 기쁜 소식이 많았다. 노력과 열정이 가득했던 한남대 선수들의 활약상을 함께 들여다보자.



제97회 전국체전 탁구, 여자대학부 개인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한남대 탁구부 선수들

1. 탁구부

한남대 탁구부가 '제3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에서 19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8월 17일부터 6일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에서 한남대는 여자대학부 단체전 결승전에 올라 공주대를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도 탁구부는 남자단체 3위, 남자 개인복식 3위, 여자 개인복식 3위 등의 성적을 내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뿐만 아니라 10월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전'에서도 활약을 이어갔다. 대전대표로 출전한 탁구부는 여자대학부 개인전(최수진, 생활체육 3)과 남자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 남자대학부 개인전(김성한, 생활체육 3)과 여자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국체전 탁구에 걸린 총 4개의 금메달 중 한남대가 금메달 2개를 차지한 것이다. 또한 대전시체육회 기자단이 선정한 MVP에 대전선수단 단일팀 최다득점(1234점)을 거둔 한남대 탁구팀이 선정되었다.

탁구부 송강석 감독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거둔 성과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잘 견디고 코치들과 소통이 원활해 이번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총장님을 비롯한 체육부와 생활체육학과에서 늘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 레슬링부

한남대 레슬링부는 제4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1개를 비롯해 총 5개 메달을 획득했다. 박지환(생활체육 4) 선수는 대학부 자유형 70kg급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를 19대 1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양경엽 선수(생활체육 2)는 자유형 57kg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한대길(생활체육 2), 이지선(생활체육 3), 손세련(생활체육 3) 선수도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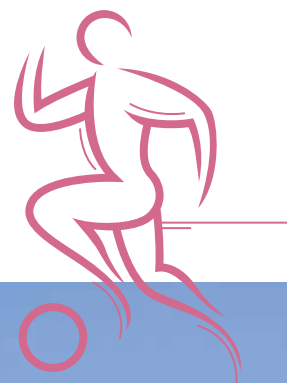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손세련(생활체육 3) 선수는 '2016년 제5회 다낭 아시아 비치경기대회 파견 선발대회'에서 여자 자유형 50kg급 우승과 함께 국가대표 티켓을 확보하기도 했다.





3. 축구부

한남대 축구부는 대전 대표로 6년 연속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축구부는 대전 한밭운동장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대학부 대표 선발전에서 배재대를 꺾고 6년 연속 출전 티켓을 차지했다. 지난 2011년부터 전국체전에 연속 출전한 한남대는 2012년에는 경희대를 꺾고 전국체전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으며, 2013년에는 3위에 오른 바 있다. 한편 한남대 축구부는 지난 2000년 창단한 뒤 이듬해 FA컵 16강에 오르며, 2003년 헝멜코리아배 우승과 2011년 U리그(대학축구) 중부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한남대 축구부 출신인 박동진 선수(광주 FC 소속)는 최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2016 리우올림픽 국가대표팀에 발탁되기도 했다.





4. 골프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군산CC에서 '2016 한남대 총장배 주니어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남녀 초등부 각 20명, 남녀 중고등부 각 24명이 참가했으며 18홀 스트로크 백카운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 대학은 2012년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에 골프레저학과를 신설하고, 프로골퍼 출신의 서아람, 이근춘 교수를 전임교수로 임용해 석사과정과 골프CEO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6 리우 올림픽에서는 서아람 교수가 해설자로 활약했다. 서 교수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올림픽 여자골프 MBC TV중계를 김성주 캐스터, 최나연 프로골퍼와 함께 진행했다. 서 교수는 199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이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통산 3승과 함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Class A멤버 티칭프로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한편 우리 학교는 올해 8월 제2체육관에 골프연습실 2개실과 스윙분석실, 9타석을 갖춘 골프아카데미실을 설치, 골프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1. 2016 리우 올림픽 여자골프경기에서 골프레저학과 서아람 교수(맨 오른쪽)가 김성주 캐스터(사진 중앙), 최나연 프로골퍼(사진 왼쪽)와 함께 하고있다.
2. 제3회 한남대학교총장배 전국 주니어 골프대회 3. 본교 골프아카데미실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모습

모집인원

928명

모집
인원

원서접수

2016. **12.31** |토| 09:00~2017. **1.4** |수| 19:00

서류제출마감

2017. **1.5** |목| 21:00

합격자 발표

2017. **1.24** |화| 17:00 이후

등록기간

2017. **2.3** |금| 09:00~**2.6** |월| 17:00모집
기간한눈에
보는2017학년도
정시모집요강등록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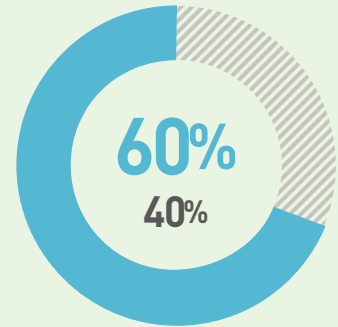
전형
방법

일반전형_수능위주



■ 수능

일반전형_실기위주



■ 실기 ■ 수능

대전·충청 1등 사립대학 한남대학교

성적
반영
방법

수능

100%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특성화고교 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면접

10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인문
(의류포함)

국어, 수학, 영어, 탐구(또는 2외국어/한문)
중 백분위 성적이 높은 3개 영역의
백분위 점수 합

× 2

환산점수
600

자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백분위 성적이 높은 3개 영역의
백분위 점수 합

× 2

환산점수
600

예·체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또는 2외국어/한문)
중 백분위 성적이 높은 3개 영역의
백분위 점수 합

× $\frac{4}{3}$ 환산점수
400

※가중치 수학 가형: 15%

※탐구는 성적이 높은 1개 과목만 반영

※한국사 필수 반영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 Biotechnology

글로벌 인재의 산실, 생명시스템과학과

세계적 생명공학기업과 협력, 미국 아이비리그 코넬대학 교수 배출



미국 프로메가(Promega)로 현장견학을 다녀온 생명
시스템과학과 전푸름 학생(맨 왼쪽), 빌 린트 프로메
가사 회장(가운데), 심하정 학생

‘글로벌’이라는 말이 친숙해진 요즘, 시대에 발맞춰 인재를 키워내는 학과가 있다. 바로 생명시스템과학과다. 이 학과는 현재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 중인 우수한 동문들을 배출한 것은 물론,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지난 7월 6일부터 14일간 생명시스템과학과 학생 2명은 글로벌 생명공학기업인 미국 프로메가(Promega)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이 회사가 위치한 위스콘신-메디슨대학에 방문하고, 프로메가의 연구소에서는 현장직무교육과정(단백질/유전공학 핵심기술강좌)을 이수했다.

현장견학을 가는데 필요했던 항공비, 프로그램 참가비, 숙박비 등 전체 경비의 약 90%는 학과에서 지원했다. 이는 생명시스템과학과의 ‘바이오 글로벌 인재양성 bridge 사업단’이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에 선정돼 5년간 35억 원을 지원받아 가능한 일이다.

생명시스템과학과는 21세기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2년 생명과학과와 생명공학과를 통합하여 출범한 학과다.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에 위치한 유리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연구소, 벤처기업 등과 활발한 산학연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아이비리그의 코넬대학 송정민 교수(94학번)와 미국 시카고 로올라 대학 임은경 교수(96학번) 등 해외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과 선배들도 있다.

Convergence Design



세계 3대 공모전 수상, 융합디자인학과

레드닷 어워드 수상 동문은 자동차디자인, 화페디자인 등 맹활약



'2016 레드닷 어워드'에서 수상한 디자인학과 김영연(22), 정다움(23), 김완기(24) (좌측부터)

한남대 융합디자인학과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디자인 분야에서 폭넓은 대외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학과의 정다움(23), 김영연(22), 김완기(24) 학생은 지난 6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2016 레드닷 어워드'에서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김완기 학생은 자신의 제품 디자인인 '캔들워머', '조미료통', '드라이버'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특허등록을 마치고 12월 개인브랜드 출시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동문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신권화폐 및 주민등록증을 도안하고 국내 화폐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는 김종희 씨(89학번)와 기아자동차 '카니발', 쉐보레 '말리부', '스파크'를 디자인한 옹성진 씨가 그 예이다. 옹 씨는 기아자동차, 폭스바겐을 거쳐 한국GM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 시즌 전국을 붉은색으로 물들였던 'Be The Reds' 티셔츠를 디자인한 박영철 씨도 한남대 디자인과 출신이다.

또한 지난 8월 영국의 왕립예술학교(RCA)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석사과정에 입학해 이 학과에서 처음 개설한 '실험적커뮤니케이션' 세부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김태호 씨(02학번) 역시 이 학과 출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왕립예술학교는 '2015, 2016 QS 세계 대학 학과별 순위'에서 예술/디자인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디자인학과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디자인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교육 커리큘럼 덕분이다. 이 학과는 총 8개의 세부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3개를 선택해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디자인 역량을 기르고 있다. 한남대 디자인학과와 활약에 더 큰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남대 최초 '스타교수' 를 만나다

한남대의 영예로운 첫 번째 '스타교수' 로 수학과 유천성 교수와 화공신소재공학과 이진호 교수가 선정됐다. 스타교수는 우리 대학이 교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연구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 최근 5년간 제출한 논문과 연구 업적 등을 종합 평가해서 선정했다. 스타교수에게는 전용주차장, 포상금 등의 혜택이 주어졌고, 수업 책임시간 또한 9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준다. 그만큼 연구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한남대만의 스타교수 제도, 시행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스타교수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무모함은 새로운 연구의 원동력

수학과 유천성 교수는 SCI를 포함, 국제 저명학술지 우수논문 발표를 비롯해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많은 논문을 발표해왔다. 또한,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변분 부등식에 관한 수치 검증법(Numerical verification method for variational inequalities)'에 대한 논문으로 한국전산응용수학회 논문상을 수상했다. 유 교수는 "스타교수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업시수 경감과 개인 주차공간이 생겨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최선을 다하는 연구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현재 유 교수는 수치검증, 자유경계치 문제 등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교수는 수학이론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과 연계한 응용수학 분야의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를 밤낮 할 것 없이 오래 진행하다 보니,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다. 유 교수는 "밤에 전자계산소의 슈퍼컴퓨터를 작동시켰는데, 다음날 전자계산소의 다른 사용자 컴퓨터가 거의 멈추었던 적이 있었다. 밤새 슈퍼컴퓨터의 메모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무모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때론 이런 무모함이 새로운 연구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교수는 수학연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즐기면서 노력한다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아하는 일을 즐겁고 신나게

화공신소재공학과 이진호 교수가 개발한 유전자 치료제는 바이오 소재와 유전자를 접목하여 인체 내 다양한 조직을 장기간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교수는 "단 한 번의 주사주입으로 장기간 손상된 인체조직을 복원하여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주입된 고분자는 체내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약 2년 후에는 완전히 몸에서 사라지게 되고 인체에는 전혀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주사 치료제다"라고 소개했다. 현재 이 유전자 치료제는 여러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요실금, 성대마비, 뼈결손 등의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

이 교수는 "앞으로도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시장력과 상품력을 모두 갖춘 기술을 탄생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언제나 그랬듯 즐겁고 신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전하며 학생들 역시 자신의 진로를 한정하지 말고 전공과 연계해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며 꼭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단, 분야가 설정되면 목표의식을 세우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소식



본교 학생들이,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 상금 전액 복지 시설 기부

본교 학생들이 최근 '2016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에서 수상하고 받은 상금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본교 학생 3명으로 구성된 클로버팀(남태욱 문예창작 3, 황주상 사학 3, 강원모 기계공학 2)은 지난 7월 10일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대학부 4위(G1강원민방 사장상)를 차지해 상금 1백만 원을 수상했다.

학생들은 지난 20일 대전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가 대회 상금 1백만 원 전액을 독

거노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클로버팀 학생들은 평소 '더불어 사는 삶'에 관심이 커 이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중 팀원 강원모 학생이 상금 기부를 제안했고, 다른 학생들도 적극 동의했다.



'공부 잘하면 못 받는 장학금' 기계공학과 '스프링 장학금'

본교 기계공학과가 전보다 더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을 격려하는 '스프링 장학금'으로 독특한 성과를 내고 있다.

1997년 다소 뒤늦게 신설된 이 학과의 교수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을까 고심하다 2004년 스프링 장학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고 십사일반 장학금을 모았다.

이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가 아니라 성적이 전보다 많이 향상된 학생에게 지급된다. 평점이 최하위라도 자신의 이전 성적보다 높아졌으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장학금으로 격려를 받은 학생들은 분발하기 시작했다. 두 번이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이 결국 학과 1등을 차지하는 일도 여러 번 생겼다. 이런 분위기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적 및 취업 향상으로 이어졌다.

학과는 2013년부터 취업률 96%로 전국 3위를 기록하면서 그해부터 올해까지 한남대 '최우수학과'에 선정되었다. 학생들은 "성적 향상으로 인해 기대하지 않던 장학금을 받으면서 도전 의욕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2016 한남대 수학체험 페스티벌' 초·중·고생 500여 명 성황

본교 수학과가 10월 29일 교내 56주년기념관에서 '2016 한남대 수학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7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16개 고교에서 모두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었다.

본교 수학과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수학체험 페스티벌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수학과 김화정 학과장의 '그림 속의 수학' 강연을 시작으로, '만들기 교실', '탐구 교실', '게임 교실'의 테마별 수학체험 부스가 오후 5시까지 운영됐다.

'만들기 교실' 부스에서는 ▲수학과 음악, 팬플룻 만들기 ▲매듭이론, 팔찌 만들기 ▲프렉탈 카드 만들기 등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탐구 교실' 부스의 ▲이제 수학도 실험이다 ▲뢰비우스띠와 클라인병 ▲수학과 마술 등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다.

또한 학생들은 '게임 교실' 부스에서 ▲확률과 게임 ▲스도쿠 ▲암호놀이 등을 통해 수학에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학 전공에 대한 진로상담도 줄을 이었다.

1. 대학역사자료실 개관기념 “한남 60년 아카이브展” 개최



본교 중앙박물관(관장 이정신)은 9월 7일 오후 2시 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대학역사자료실 개관기념 ‘한남 60년 아카이브展’을 개최했다.

대학역사자료실 개관 전시는 60년 동안 한남대 구성원들이 남긴 행정박물 130여 점을 주제별로 선별했다. 주요 전시물은 대전대학 시절의 대학캠퍼스계획도(1955년), 대전대학보 창간호(1957년), 기계식계산기(1959년), 교훈모집 표창장(1962년), 송전대학 시절의 실험대학신청서(1972년), 분리환원 시민서명명부(1980년), 컨닝볼펜(1980년), 종합대학 승격기념 이사장 회호(1985년), 상징탑 건립자료(1986년), 민주화운동 자료(1987년) 등이다.

본교 중앙박물관은 대학역사자료실을 상설 운영하여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민, 해외방문단 등에게 한남대학교의 60년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 영어교육과, 6년 연속 영어수업능력(TEE) 인증평가기관 선정



본교(사범대학교와 영어교육과 공동 주관)가 대전시교육청의 2016년 ‘초·중등 영어교사의 영어수업(TEE : Teaching English in English)능력 인증평가기관’으로 선정되어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본교의 이번 인증평가기관 선정은 6년 연속으로, 대전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영어교육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영어교육평가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영어교사의 영어수업능력 인증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E) 교사 확대 및 학교 실용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어교사의 TEE능력 및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공인하는 전국적인 교수법능력 평가인증제도이다.

3. 화학과,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본교의 개교와 동시에 최초로 설립된 화학과는 올해 ‘개교 60주년 및 학과 설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2일 대덕밸리캠퍼스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화학과 학술제’를 시작으로 정일남 박사(JSI 실리온 대표이사)의 동문특강, 한남대 이수민 석좌교수의 학과 역사 소개,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화학과 비전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학과 60주년을 축하하는 “2016년도 대한화학회 대전·충남·세종지부 학술심포지엄(지부장 공주대 화학과 김진권)”을 대덕밸리캠퍼스에서 개최했다.

4. 경영학과 동아리 학생들, ‘2016 충남 강소기업분석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본교 학생들이 9월 9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한 ‘2016 충남 강소기업분석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남대 경영학과와 경영·학술동아리인 ‘T.O.P Factory’ 소속 송민수(경영학과 3), 김중서(경영학과 3) 학생과 원다희(비즈니스통계학과 3) 학생은 ‘2016 충남 강소기업분석 경진대회’에서 “뚝뚝한 사람들이 모인 작은 기업 ‘펜믹스’”란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T.O.P Factory’ 동아리는 전문적인 직무능력과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만든 경영학과와 대표 경영·학술동아리로, 학생들이 스스로가 자체적인 커리큘럼 개발해 팀별 스터디 및 각종 전국대회 규모의 공모전 참여 등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5. 실레스트합창단 ‘메시아’ 공연



본교 실레스트합창단은 개교 60주년 기념 ‘메시아’ 연주회를 11월 19일 오후 6시 30분 교내 성지관에서 개최했다.

헨델의 대표적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는 43년의 전통을 가진 한남대 실레스트 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겸해 열린다.

메시아의 지휘는 실레스트 합창단의 이재호 지휘자, 오르간 반주는 최은하 반주자가 맡는다. 김민형(소프라노), 구은서(메조 소프라노), 서필(테너), 오동규(베이스), 김희경(첼로)과 안다무지크 필하모니아가 협연한다.

한남대 실레스트 합창단은 지난 1973년 창단해 올해 43주년을 맞았다. ‘하늘의 빛’이란 뜻을 담고 있는 실레스트 합창단은 학기마다 매주 채플의 찬양을 담당하고 다양한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6. 건축학과, 조치원역 경관개선 공모전 대상 수상



본교 건축학과 학생들이 5월 30일에 개최된 조치원역 광장 경관개선 학생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LINK:AGE'(최한솔 4, 서경석 4, 이주희 3)팀은 이번 공모전에서 팝업무빙 컨테이너 개념을 도입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광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LIMITLESS'(강종구 4, 송영윤 4, 장희수 4)팀이 은상을, 'HUB'(노준호 4, 정영호 4, 유현정 4)팀이 동상을 수상했다.

7. '2016년 국가대표 한국와인소믈리에 경기대회' 대학생 제안서부문 최우수상 수상



본교 학생들이 11월 2일, 3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16 전국 대학생 한국와인 제안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1백만 원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이 대회에서 본교 윤종모(컨벤션호텔경영학과), 김인영(역사교육과), 서슬이(컨벤션호텔경영학과), 서유빈(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학생은 'K-Food와 한국와인의 조화에 따른 스토리텔링 개발'이라는 주제로 '하모니크 블랑(Harmonique Blanc)'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함께 열린 '2016 제2회 국가대표 한국와인 소믈리에 경기대회' 대학생 부문에서는 본교 조현지(컨벤션호텔경영학과)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8. 전자공학과, 건축공학과 학생 스토리텔링캠프 은상 수상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대구 호텔 인터볼고 엑스코에서 열린 '2016 창의·융합 스토리텔링 캠프'에서 본교 공학인증 이수 학생인 전자공학과 이영욱, 건축공학과 차광철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다.

영남대학교 공학거점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공학계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품에 맞는 최적의 이야기를 창조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등 'Design Thinking으로 Nudge Effect표현'을 주제로 하는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9. 린튼스쿨, 'CAMPUS Asia-AIMS 사업' 선정



본교 국제학부 린튼스쿨의 '대전-하노이-자카르타-페낭 아세안비즈니스 창의인력양성사업단'이 교육부의 'CAMPUS Asia-AIMS 사업'에 선정돼 5년간 약 9억 2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한국과 아세안(ASEAN) 국가 학생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범아시아 교류 프로그램으로 참여대학들의 학점 상호 인정, 공동 커리큘럼, 학위의 질 보장 등을 통해 지역전문가 및 지한파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린튼스쿨은 베트남 경상대학인 외상대학, 인도네시아 우수대학인 비누스 대학 및 말레이시아 우수대학 USM을 교류 대학으로 선정, 사업기간 동안 약 150여 명의 우수 학생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10. 본교, 육군훈련소와 군·학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덕훈 총장은 8월 31일 오전 10시 육군훈련소와 군·학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전략대학원에 군·학 협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군 제휴협약 대학과 학점교류를 하게 되었다. 또한 육군훈련소의 대학원 희망자들에 대해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할 허가하고 장학 혜택을 부여하는 등 상호 발전과 교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11. 본교 '제12회 전국외국인 한국어 말하기·글짓기대회' 개최



본교 한국어교육원(원장 황진영)은 제570돌 한글날을 앞두고 10월 7일 '제12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거주 외국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는 20개국 30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해 한국 문화와 한글의 우수성을 표현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한남People



1. 이덕훈 총장, 대한경영학회 차차기회장 추대



이덕훈 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생산성본부에서 개최된 대한경영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에서 차차기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임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대한경영학회는 국내 최대 규모인 약 7,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문사회 분야 최대의 학회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연구재단 등재지인 '대한경영학회지'를 1년에 12회 출간하고 있다. 대한경영학회는 일반 경영학은 물론 호텔경영학, 의료경영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조사, 국제심포지엄 및 세미나, 산업계와의 교류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영어교육과 이영식교수,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장 피선

이영식 교수(영어교육과)는 7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영어교육학회(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KATE) 학술대회 총회에서 한국영어교육학회 제2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영어교육학회는 창립된지 50년 이상이 지났으며, 600명 이상의 대학 영어교수와 2,000명의 정회원을 포함한 3,000명 이상의 인터넷 회원을 가질 정도로 국내에서 영어에 관한 학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학회이다.

3. 화공신소재공학과 이광섭 교수, 미국광학회 학술잡지 특별호 발간

이광섭 교수(화공신소재공학과)가 미국광학회 학술잡지인 'Optical Materials Express'의 특별호 발간했다. 이 교수는 지난 8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K. T. Kotz교수, MD앤더슨 암센터의 K. Sokolov교수 등과 함께 미국광학회에서 발간되는 전문학술지인 'Optical Materials Express'와 'Biomedical Optics Express'의 공동으로 "바이오포토닉스 소재와 응용"이란 주제의 특별호를 발간하였다.

4. 수학과 유천성 교수, 한국전산응용수학회 회장 선임

유천성 교수(수학과)가 11월 12일 한국전산응용수학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7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한국전산응용수학회는 1994년 설립돼 응용수학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수학을 필요로 하는 공학이나 과학 분야의 연구에 공헌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유 교수는 Kyushu 대학교에서 응용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KAIST 기성회 이사회 회장, 한국전산응용수학회 부회장, JAMI의 편집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본교 첫 스타교수이기도 하다.

기부, 그리고 사랑

• 또 다른 가족, 한남대

학부모들의 연이은 대학발전기금 쾌척 감동



김병순 학부모

정완영 학부모

숨진 딸의 이름으로, 12년째 장학금 기탁하는 아버지 (주)나노하이테크 김병순 대표, 지금까지 6천 4백만 원 쾌척

“제 딸이 이루고자 했던 학업의 꿈을 다른 학생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본교 재학 중 희귀병으로 숨진 딸의 모교에 12년에 걸쳐 매년 수백만 원씩 총 6천 4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온 아버지가 있다.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표는 9월 29일 본교를 방문해 이덕훈 총장에게 6백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일문과 4학년 재학 중 루푸스병으로 세상을 떠난故 김희진 학생의 아버지이다.

김 대표는 딸이 숨지고 난 뒤 딸의 이름을 딴 ‘김희진 장학기금’을 만들어 매년 수백만 원씩 본교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번 6백만 원을 포함, 2005년부터 지금까지 김 대표가 기부한 장학금은 총 6천 4백만 원에 이른다.

김 대표는 “이제는 한남대가 제 곁에 있는 포근한 가족같이 느껴진다”며 “장학금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딸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훈 총장은 “딸을 잃은 슬픔을 귀한 장학사업으로 승화시켜 12년간 많은 학생들의 꿈을 뒷받침해준 김 대표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는 2006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故 김희진 학생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표(사진 오른쪽 세번째)가 지난 9월 이덕훈 총장(왼쪽 세번째)에게 장학기금 6백만 원을 기탁했다.

철학상담학과, 영문과 학부모도 학교발전기금 기탁에 동참

한남대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모금 운동에 학부모들이 잇따라 동참했다.

영문과 재학생의 학부모 정완영 씨는 11월 2일 본교를 방문해 이덕훈 총장에게 3백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정 씨는 “딸이 학교 공부와 기숙사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학교 발전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께서는 기부가 본인에게 더 기쁨과 보람이 되는 일이고, 액수도 크지 않다면 익명으로 조용히 전달하고 싶어 했지만, 학부모의 기부가 흔치 않은 일이라서 총장 감사인사와 전달식 등의 약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철학상담학과 재학생의 학부모 이경은 씨가 3백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 씨는 10월 12일 ‘개교 60주년 기념 학부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뒤 어려운 대학환경 속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인 이 씨는 “딸이 멀리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걱정없이 믿고 맡길 수 있어 한남대에 늘 감사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좋은 일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덕훈 총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 않은 기부 결정을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들을 친자식 같이 잘 지도하고 교육함으로써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완영 학부모(오른쪽 세 번째)가 11월 2일 이덕훈 총장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기부 바이러스 확산,

2016년 학교기금 **총 12억 원 돌파** (약정금액 포함, 2016. 3.1 ~ 11.24)

• 한남대 기부천사들



이덕훈 총장 발전기금 1억 원 기탁

이덕훈 총장이 지난 6월과 9월 1,2차에 걸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총 1억 원을 기탁했다. 이 총장은 “한남대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며 솔선수범하는 신뢰의 리더십으로 학교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한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동문 출신으로, 한남대가 개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3월 제16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총장 전용차량을 없애는 등 경비 절감에 앞장서고, 대학발전기금의 확충을 위해서도 발로 뛰고 있다.



본교 사학과 학생들, 2016 신라국학대제전 논문공모전 장려상 수상 공모전 상금 전액 장학금 기탁

본교 학생들이 공모전 상금 전액을 학과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화제다. 사학과 이정수(4학년), 황주상(4학년), 천혁진(3학년) 학생은 11월 18일 이덕훈 총장에게 장학기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 금액은 학생들이 최근 열린 ‘2016 신라국학대제전 대학생 논문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전액이다. 황주상 학생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었고, 후배들이 더 많은 도전을 시도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상금을 학과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말했다.



(주)알테오젠, 장학기금 4천만 원 기탁

(주)알테오젠 박순재 대표는 6월 14일 본교를 방문, 이덕훈 총장에게 장학기금 4천만 원을 기탁했다. 박 대표는 “미약하지만 학교 발전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해서 학교발전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주)알테오젠은 2008년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설립되어 바이오 의약 개발 분야의 핵심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최근에는 지속형 바이오의약품 및 차세대 항체 의 약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한편 장학금은 1년에 1천만 원 씩 총 4년간 생명시스템과학과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영학과 교수들 장학기금 3천만 원 기탁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은 본교에 대학발전기금 기탁 릴레이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학과 교수 13명이 지난 11월 9일 수요 교직원 예배를 마치고 학과 장학기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



미술교육과 박병희 명예교수, 발전기금 3천만 원 기탁

지난 2013년 2월 우리대학을 정년퇴직한 미술교육과 박병희 명예교수는 9월 28일 3천만 원을 학과 장학기금으로 쾌척했다.

박 명예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미술교육과 후배교수들의 부축을 받아 장학기금 기탁식에 참석했다.

박 명예교수는 “제가 졸업한 모교이며, 학생들을 가르쳤던 한남대로부터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약소한 금액이다. 훌륭한 미술인을 기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남대 사범대학장, 전국조각가협회장, 인도 델리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남대에 각종 조각상을 기증했으며, 성지관 건물 벽에 걸린 십자가도 그의 작품이다.

♥ 기부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과 권리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학교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합니다.

- 기금의 기여정도와 기부하신 분의 의사에 따라 건물 또는 건물 내 특정 공간의 명칭을 명명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 명단은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에 공지합니다.
- 출연하신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 및 법인 세제혜택을 위하여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 방문납부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본관 1층에 위치한 대외협력팀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 급여공제

본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서 일 정액을 공제기부 하실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팀 (Tel. 042-629-7502~3, 8099)으 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입금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설한 한남대학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란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 전화로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710401-00-002814 / 예금주 한남대학교]

